



#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 에너지산업 민-관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5.9.(목)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SCO협회, 민간발전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H2KOREA,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도시가스협회, 민간 LNG산업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원자력산업협회 등 15개 협·단체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총괄>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5126)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김도형 (044-203-51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참고 1

#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및 첫 번째 정례협의회 개요

## 1.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 **(배경)**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 시 에너지산업 대표단체 필요성 제기, 주요 협·단체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연합회 설립 검토
- **(협의회 구성)** ESCO협회, 민간발전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H2KOREA,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도시가스협회, 민간LNG산업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원자력산업협회 등 15개 협회
- **(운영방향)**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을 논의

## 2. 첫 번째 정례협의회 회의 개요

- **(주요 의제)** 에너지산업 수출 현황 및 지원방향 논의
-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11개 에너지산업 협·단체 부회장
- **(일시 /장소)** '24.5.9(목) 11:00~12:45 / 달개비 111~112호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00~11:05 (5)	모두 발언	2차관
11:05~11:15 (10)	① 에너지산업 수출 현황 및 지원방향	에너지정책관
11:15~12:00 (45)	② 협회별 산업 현황 및 건의사항 발표	에너지단체 정책협의회
	▶ 산업 현황 발표(각 2분 이내) ▶ 건의사항(각 1분 이내)	
12:00~12:40 (40)	오찬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2:40~12:45 (5)	마무리 발언	2차관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및 연관 산업 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에너지정책 과제로 자리매김
  - 미, 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원자력, 전력계통 등에 '30년에는 연간 5,914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22, 1,799조원)
  - \* 에너지新산업 분야별 투자액(조원) : 에너지효율 1,993, 재생에너지 1,534, 전력계통 819, CCUS 697, 원자력 329, 자원순환 314, ESS 118, 수소 110(BNEF, '23)
  - 높은 성장세를 시현 중인 세계 에너지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술 역량 강화, 실증 및 사업화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산업화할 필요

II. 유망 에너지산업 현황

- (에너지산업) 국내 매출 285조원, 기업 2.5만개사, 종사자 55만명('21)

< 주요 분야별 매출 (조원, '21) >



\* CCS, 청정화력, 자원순환은 시장 未형성으로 구분 제외

< 주요 분야별 기업/종사자 수 (천개사, 만명, '21) >

구분	세부분야	기업 수	종사자 수
■ 전력	· 전력계통, ESS	16.1	23.5
■ 에너지효율	· 효율향상, 수요관리	6.0	19.7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기타	1.4	2.9
■ 원자력	· 원자력	0.8	5.6
■ 수소	· 수소, 연료전지	0.1	0.4
■ 융복합 등	-	0.8	2.7
합 계		25.2	54.8

※ 출처 : KETEP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23)

- (수출) 발전기, 전선 등 주요 품목 수출액(수주 포함) 318억불 규모('23)
  - 배터리, 연료전지 등 ESS 관련 품목 수출액 100억불 규모('23, '22년 101억불)
  - 발전기, 전선, 배전 및 제어기 등 발전·계통 관련 품목 수출액 218억불 규모('23, '22년 194억불)

### Ⅲ. 수출 활성화 방안

- **(지원방향)**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시장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
  - 에너지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측면에서 내수시장 육성을 우선시하므로, 유사입장국과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 창출 중요
    -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전원 관련 기술을 확보해 나가면서, 美, 日 등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통해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
    - G2G, 양자 에너지협력 등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해외시장 교두보를 확보해나갈 필요
  - 한국은 원전, 수소, 배터리, 계통설비 등 우수한 제조기술력이 강점  
→ 대규모 실증, 사업화 연계를 통해 수출성과 창출 잠재력 높음
    - 공공조달과 연계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공기업 브랜드 공동활용, 해외 진출을 위한 '팀-코리아' 결성 등 민관협력도 중요

#### 1. 민관 협력을 통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민관협력 판로확대)** '에너지新산업 수출카라반'을 구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대상 전략 설명, 기업애로 해결
  - 초격차 에너지기술기업 '에너지해외진출펀드' 투자 연계 등 기술 금융 플랫폼 구축, 컨설팅 기관 매칭 등 현지 경쟁력 강화
- **(공공 브랜드 지원)** 기업-공공기관과의 동반협력 강화로 브랜드 파워 공유, 해외인증 취득 등 판로 개척 지원
  - R&D 우수성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시장 개척)** 해외 사업 발굴, 인력 교류 등 현지 거점인 「에너지新산업 협력센터\*」 구축,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협력플랫폼 역할 확대
  - \* 미국 (SMR, 수소, 원전해체 등), 호주 (수소, CCUS 등), 독일 (수소, 효율향상 등)

## 2.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유망 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지원

- **(국제감축)** 국가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新산업의 해외 진출 불확실성 최소화
  -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플랫폼 활용, 韓기업 간 1:1 파트너링 상담, 포럼 등과 연계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그린 ODA)** 탄소중립에 기여가능한 에너지 유망 산업 밸류체인 강화, 신규사업 다각화로 그린 ODA 외연 확대
  - MDB 협력 확대(MOU 확대\* 등)로 우리 기업의 MDB 참여 제고
    - \* (既 체결) KIAT-WB('18.8), IDB('22.9) → (확대) CABI(중미경제통합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등
    - ↳ ▲주요 사업 공동기획, ▲투자정보 등 교환, ▲상호 기관 간 전문가 파견 및 교류 등

## 3.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 **(실증특례-해외진출 연계)** 에너지新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집중 지원 추진
  - 실증특례 신청시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규제기관 협의 지원, 공기업 협력 등 수출성과 창출에 필요한 쏠 과정 집중 관리
- **(수출형인재 양성)** 해외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한 우수인재 육성 추진
  - 해외 최상위 대학·기관으로 파견 교육을 확대 하고, 현지경험 축적형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설 ('24. 上)
- **(세계최고 기술 확보)** 초일류 연구기관과의 원천기술 개발 협력, 선도기술 도입 확대, 대규모 실증형 프로젝트 공동 추진 ('24. 下)
  -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2개, '25년)으로 차세대 혁신·전략 기술 확보,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